

제주도 사회조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김석준**, 이상철***

목 차

- I. 서 론
-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 III. 자료의 분석
- IV. 요약과 결론

I. 서 론

최근 세계질서가 재편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세계화를 대비하거나 지역이 주체가 된 지방화에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지역연구의 활성화는 그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그러나 전국의 각 지역은 연구단위로서의 독자성(특수성)을 입증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지역연구의 표본사회'(장주근, 1984)라고 할만큼 지역연구에 적합한 지역이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그 인문·사회·자연과학적 성격이 일찍부터 관심대상이었다. 1959년 각계의 후원을 받아 대규모 종합학술조사단이 구성되어 인문·사회·자연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그 증거가 된다(한상복, 1984). 이런 관심은 제주도가 육지로부터 격리되어 한국 사회의 옛모습을 여러 면에서 잘 간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고유의 특징도 지니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더 커진다. 게다가 제주도는 인구가 50만 정도여서 연구단위로서 지나치게 작거나 크지가 않아 다양한 조사연구를 하는 데 적합한 규모이다. 요컨대 연구내용뿐만 아니라 연구단위의 규모에서도 제주도는 사회조사연구의 이상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연구는 '96학년도 재단법인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주사회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의 영향하에 197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관광개발이 이때쯤 착수되어 1970년대에는 '관광제주'라는 기치가 울려지고 효율적 개발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들이 활성화된다. 상당한 투자와 함께 관광산업을 위한 기간시설들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지역의 산업 및 공간 구조의 재편성은 물론 본토와의 왕래도 활발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다른 한편 '표본사회'로서 제주지역이 지닌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1978년에 전국적인 학제적 연구조직으로 결성된 '제주도연구회'는 그런 인식에 터한 연구자들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위와 같은 두 방향의 연구동향간에 보다 활발한 논쟁이 이어진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쟁점이 각종 학술 모임이나 연구논문, 심지어 신문 사설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실천적 측면에서도 이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주민운동의 압력을 반영하면서 그에 관한 논쟁은 더욱 심각한 대립상을 그려낸다. 1988년 해녀들의 집단시위로 시발된 탐동매립반대운동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전개된 주민운동은 이 지역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종래의 개발우선주의 정책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반성을 주민의 입장에서 행동으로 요구하게 됐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권위적인 중앙집중적 권력 또는 그와 손잡은 독점대자본의 자기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민의 저항을 고려하지 않고는 종전처럼 쉽게 관철되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1991년 국회를 통과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상징하듯이 제주지역에서는 개발이라는 명제가 여전히 제일의적인 것으로 사회변동의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다(이상철, 1987, 1995).

이제 제주도에서 '표본사회'로서 연구자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변질되어왔다. 그간의 개발로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도 관광중심의 구조로 변형되어 왔고, WTO의 영향과 현재의 정책은 그런 변형에 더 큰 힘을 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제주의 특성산업인 감귤농업의 위기는 농촌 내부의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 전체의 구조변동을 야기할 주요변수로 등장하리라 예견된다(김석준, 1995).

필자는 이 글에서 그와 같은 제주지역사회의 성격과 변동을 대상으로 그 동안 어떤 사회조사연구가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 시기에 특정 공간에서 수행된 사회조사는 그 시공간의 성격을 이해하는 기초자료의 구실을 할 수 있다. 게다가 한 지역공간을 대상으로 여러 시기에 걸쳐 이루어진 사회조사의 성과는 그 지역사회사의 변동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했고 어떤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는지를 시사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기왕의 사회조사연구의 성과들을 수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제주사회 연구에서 결여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토론했고자 한다. 또 한가지는 그러한 양적 검토의 과정에서 제주사회가 경험한 사회변동의 성격이 어떻게 연구자들에게 투영되어왔는지도 일정하게 따져보고자 한다. 이러한 토론이 제주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진요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은 여태까지의 제주도 사회조사연구 업적들을 수량적으로 정리·비교·분석하여, 앞으로의 연구들이 그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름의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에 따라 연구결과의 데이터 베이스화가 이루어지면 타지역과의 비교연구가 훨씬 손쉬워지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그 동안 제주도에 관한 사회조사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는 1987년에 발표된 신행철의 “제주사회연구의 전개와 과제”와 1995년 김석준·이상철의 “제주지역 사회조사의 성과와 과제”에서 그 대략적인 윤곽을 알 수 있다.¹⁾ 전자는 일제하에서 1987년까지의 인류학 및 사회학적 연구들, 후자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들을 간략히 검토하고 있다.

이 두 연구는 각각 나름의 학술적·실용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망라하고 있는 연구성과가 인류학과 사회학의 두 영역에 국한되고, 이미 10여년 전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의 필요성과 검토할 연구성과의 확대가 요구된다. 후자의 경우는 최근까지의 사회조사의 성과를 포함했다는 점이 인정되나, 단지 한 대학 단일학과 교수들의 것만으로 한정하여 연대기적으로만 간결히 정리했을 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그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과 범위를 갖고자 한다.

우선 이 글에서 검토할 대상인 사회조사연구의 성과들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로 한다.

첫째, 제주도 또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나 표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해석한 논문 또는 단행본으로 발표된 연구 성과일 것.²⁾

둘째, 이론적 또는 사변적인 연구나 역사학자가 사료를 조사하여 기술한 것과 같은 유형의 문헌기록의 검토에 의한 연구가 아닐 것.

셋째,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자에 의해 주도된 연구성과일 것.

따라서 이 글이 검토하게 될 연구성과물들은 조사된 당시의 사회상을 그려내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적 사회조사의 결과물에 한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게

-
- 1) 이 두 연구는 모두 사회학자에 의해 수행됐다. 사회학이 아닌 다른 학문분야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정리해 본 것에 대해서는 김종업 외(1984), 신행철 외(1985), 권인혁(1986), 양성종(1991), 김종업·김동진 외(1991), 제주도(1993), 강정식·좌혜경(1994) 등을 참조할 것.
 - 2) 논문과 단행본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이 더해진다. 논문일 경우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은 포함했으나 시사잡지나 그에 준하는 잡지에 실린 논문형식의 글과 석사학위논문은 제외되었고, 단행본도 용역보고서나 조사보고서는 제외시켰다.

된 이유는 장기적으로 이 글의 연구결과가 제주사회에 대한 경험적 연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에도 소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검토할 연구대상물들은 1970년 이후 이 연구의 착수시점인 1996년까지 발표된 것들로 제한시키고자 한다. 물론 이는 사용가능한 비용과 시간이 충분치 못한 탓에 연구자료의 수집이 비교적 용이한 것들로 분석대상을 한정시키기 위해 선택된 방법이다. 그렇지만 제주사회에 대한 어느 정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조사가 1970년 이후에야 전개됐다는 지적(김석준·이상철, 1995)도 고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³⁾

이 글의 목적이 일단은 제주도에 대한 사회조사연구의 수량적 개관에 있다는 점에서 해당되는 시기에 발표된 연구성과들을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따라서 굳이 통계학적 의미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연구목적의 달성 여부는 기존의 성과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수집·정리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김경동, 1980).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제주도에 대한 연구물들을 게재해 온 학술지들을 모아서 살피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일차로 각 연구문헌이 사회조사를 실시했는가를 점검하고, 그 연구문헌이 인용하고 있는 참고문헌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런 후에 이를 연구자별로 분류하여 각 연구자들에게 위와 같은 범위에 드는 연구업적이 필자가 목록으로 만든 것 외에도 더 있는지를 1996년 11월부터 1997년 2월까지 2회에 걸쳐 우편으로 설문하였다. 1차에는 25명에게 설문하여 16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이를 다시 목록화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다시 드러난 연구자 66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2차 설문을 하여 28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결국 총 91명의 연구자에게 설문하여 44명의 회신을 받아 이를 목록화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반복해나간 것이다. 회신이 없는 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했다. 그리하여 수집된 자료는 논문 102편과 단행본 8편이었고 이들이 분석대상이 되었다.⁴⁾ 그러나 설문조사의 회신률이라든지 수집된 자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글의 한계가 그어진다.

다음은 수집된 연구성과물들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을 추출하고 이를 부호화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분석항목에는 발표년도, 연구주제, 조사방법, 연구비수혜여부, 연구원 수 등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었다.⁵⁾

3) 원래 이 글은 일제하에서부터 1996년까지 실시된 제주사회에 대한 사회조사의 연구성과물을 다 망라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발표된지 오래된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러 서적에 인용되어 있음에도 해당 인용자들에게 직접 문의를 할 경우 그 자료의 출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여러 도서관을 뒤져도 구할 수 없는 자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분석대상 자료의 발표시기에 대한 제한은 바람직한 것이라기보다 현실적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선택된 것일 뿐이며,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수집되어 분석대상이 된 연구성과물들은 이 글의 말미에 〈부록: 분석대상문헌〉으로 정리해두었다.

5) 연구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분석항목들의 부호화 절차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각 항목들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제시할 때에 같이 소개하도록 한다.

이 가운데 연구주제의 부호화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부호화에 앞서 연구주제의 범주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작업이 그리 간단치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 학문분야가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일반에서 수행된 연구성과를 한데 모아놓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주제들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단일 차원으로 범주화하기에는 주제간에 중첩과 배제의 부분들이 너무 복잡다기한 것이다. 더욱이 하나의 연구논문에서 단일 주제가 아니라 몇 개의 주제를 동시에 다루는 것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이러한 중층성과 복잡성을 가능한 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먼저 수집한 연구성과물들을 검토하면서 각각의 연구주제들을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살려 주제어를 최대 4개 항목까지 기록해 나가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런 후에 그 기록된 주제어들을 가장 가깝게 유사한 것끼리 집단화하는 일을 반복했다. 이 때 한 주제어가 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두 집단 모두에 속하도록 하거나 해당 연구논문에서 그 연구주제가 관련된 내용을 재검토하여 어느 한 집단에만 속하게 하였다. 이렇게 정리되어진 집단의 수는 총 163개였다. 이를 다시 보다 큰 주제어로 대집단화를 시도한 결과 총 21개의 주제어 집단으로 정리가 가능했다. 결국 이 21개의 대집단을 분석에 동원된 연구주제의 범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그에 속한 주제어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주제의 범주와 하위 주제어 목록

연구주제의 범주	하위 주제어 목록
1. 정치와 행정	국가, 권력구조, 지배, 리더쉽, 엘리트, 통일, 안보, 선거, 투표, 행정일반, 지방자치, 사회동원, 주민참여...
2. 경 제	소득(중대), 분배, 소비, 생산(구조), 유통(구조), ○○경제적 효과, ○○비용, 생계경제, ○○경제, ○○구매, 마을공동재산...
3. 인구와 지리	인구구조, 인구이동, 이촌, 이농, ○○지리...
4. 산업, 교통, 기술	○○산업, 농업경영, 상업화, 토지이용, 어장, 택시, 버스, ○업종, 비공식부문, 산업기술, ○○기술, 농작법...
5. 노 동	노동시장, 노동실태, 노동시간, 노사관계, 노동조합, 취업구조, 취업구성, 노동력, 임금, 근무생활의 질, 가사노동...
6. 문화, 민속, 관습, 언어	○○문화, 풍속, ○○의례, ○○관행, 녁동배기, 연자매, 언어, 방언...
7. 사회화와 교육	○○교육, 사회화, 인격형성, 교학...
8. 종 교	무속, 무적, 신앙생활, 당제, 제의, 제사...
9. 법과 규범	○○권, ○○권익, 권리, ○○법, 법사회학...
10. 지역사회	농촌, 어촌, 공동체, ○○마을, 촌락, 섬, 도시, ○○지역, 지역사회, 생활권...

<계속됨>

〈표 1〉 연구주제의 범주와 하위 주제어 목록

〈계속〉

연구주제의 범주	하위 주제어 목록
11. 사회집단과 사회범주	○○지역주민, 농어민, 관광객, ○○종사자, 교포, 해녀, ○○소비자, ○○학생, 지방의회의원, 주부, 성인여성, 청소년, 노인, 준거집단, 엘리트, ○○집단, 공무원...
12. 사회조직과 경영·관리	경영관리, 노사관계, 노사협의제, 물류비, 직무만족, 사기, (조직, 기업의)의사결정, ○○조직, ○○상품, 품질관리, ○○서비스, ○○기업(체), ○○조직(체), 조직유효성, 계...
13. 행위와 행동	○○행동, ○○행태, 사회적 비교, 행위결정...
14. 의식, 태도, 정신, 정체성	○○의식, ○○동기, ○○정신, ○○태도, ○○정체성, ○○만족도, 사기, 불만요인, 자긍심, 가치관, 배금주의...
15. 사회구조	생태구조, 계급구조, 사회통합...
16.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운동, ○○항쟁, ○○저항, ○○항거, ○○분쟁...
17. 사회문화변동	전통사회, 근대화, ○○개발, 역사, 유물, 유적, ○○동향, ○○추이, ○○변화, ○○변동...
18. 성과 세대	성차별, 성역할, 성체계, 성별분업, 남녀평등, 세대간 문제, 노인의 생애...
19. 가족과 가정	가족(관계, 구조), 친족구조, 부모자녀관계, 가정환경, 일인가족, 의식주, 가사노동, 제사분할...
20. 일상생활	○○생활실태, 마을지, 민족지, 생물가스이용, 연줄망, 사회적 유대, 지역성, 사회적 거리, 친구관계...
2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청소년비행, 범죄, 도박, 낙인효과, ○○복지...

Ⅲ. 자료의 분석

1. 연도별, 시기별 사회조사연구 성과의 발표 동향

우선 〈표 2〉를 보면, 1970년대의 경우 전체의 9.1%인 10편의 사회조사연구 결과만이 발표되어 이 기간이 사회조사연구의 실질적 도입기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것이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증가추세를 보여 전체의 41.8%인 46편이 발표된다. 1980년대에는 특히 1985년 이후의 후반으로 가면서 발표된 사회조사연구 성과가 연평균 6.8편에 이를 정도로 증가의 폭이 커진다. 이는 1970년대의 연평균 1편의 수준에 비할 때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그 후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 동안에만 54편, 49.1%가 발표되는 것으로 이어질뿐더러 연평균 7.7편의 성과를 보여준다.

<표 2> 연도별, 시기별 사회조사연구 성과의 발표 동향

발표 연도	발표 건수	백 분 율	누적백분율	10년 간격 백분율
1970	3	2.7	2.7	30.0
1971	0	0.0	2.7	0.0
1972	1	0.9	3.6	10.0
1973	2	1.8	5.5	20.0
1974	0	0.0	5.5	0.0
1975	0	0.0	5.5	0.0
1976	1	0.9	6.4	10.0
1977	1	0.9	7.3	10.0
1978	1	0.9	8.2	10.0
1979	1	0.9	9.1	10.0
1970년대 소계	10	9.1	9.1	100.0
1980	2	1.8	10.9	4.3
1981	0	0.0	10.9	0.0
1982	4	3.6	14.5	8.7
1983	1	0.9	15.5	2.2
1984	5	4.5	20.0	10.9
1985	3	2.7	22.7	6.5
1986	9	8.2	30.9	19.6
1987	7	6.4	37.3	15.2
1988	5	4.5	41.8	10.9
1989	10	9.1	50.9	21.7
1980년대 소계	46	41.8	50.9	100.0
1990	6	5.5	56.4	11.1
1991	10	9.1	65.5	18.5
1992	6	5.5	70.9	11.1
1993	5	4.5	75.5	9.3
1994	8	7.3	82.7	14.8
1995	9	8.2	90.9	16.7
1996	10	9.1	100.0	18.5
1990년대 소계	54	49.1	100.0	100.0
합 계	110	100.0	-	-

주) 1990년대는 10년 간격이 아니라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7년간임.

이러한 결과는 사회조사연구가 최근으로 오면서 더욱 활발해졌음을 말해준다. 아마도 이는 제주 지역 내 대학 등을 중심으로한 1980년대의 연구자 충원⁶⁾과 사회조사기법 보급 확대,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사회조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수용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가능하게 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각종의 개발로 인해 1980년대에 오면서 산업구조가 크게 달라지고 제주지역의 사회적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그에 대한 토론의 활성화와 함께 그를 뒷받침할 사회조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추정된다.

2. 연구주제별 사회조사연구 성과의 발표 동향

다음은 조사된 연구주제에 어떤 것들이 있고 연구된 비중은 어떠한지를 시기별로 살펴보자(〈표 3〉 참조).⁷⁾ 1970년대에는 주로 지역사회와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두 주제가 공통적으로 다섯 번이나 다루어져 가장 많은 비율(14.3%)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산업·교통·기술의 범주와 사회조직·경영의 범주에 속하는 연구주제가 많이 연구되었다(각각 4회). 그 뒤를 사회집단·사회범주, 사회구조, 사회문화변동에 대한 연구가(각 3회), 이어서 문화·민속·언어와 의식·태도·정신·정체성의 범주에 드는 연구주제들에 대한 접근이 각 2회 있었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분포로 본다면 이 시기의 사회조사연구 동향은 지역연구의 표본사회로서 제주도라는 의미-제주사회의 독특함과 전통성 유지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편 지역개발 또는 발전과 관련된 주제도 일부 논의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주제도 8개 범주나 된다. 정치와 행정, 경제, 인구와 지리, 사회화와 교육, 법과 규범, 행위와 행태,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에 이미 제주도에 대한 개발이 점차 본격화되어 그로 인한 문제들이 일정한 수준 표출되던 상태(이상철, 1995)임에도 그에 대한 사회조사 연구는 그리 활성화되어있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접근이 시도되지 않은 8개 범주가 개발과 그 문제들에 주로 관련될 수 있는 연구주제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1970년대의 사회조사연구 동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편이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좀 더 나아가 이는 1970년대에 제주도 지역개발과 연관된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시사해주시기도 한다. 곧 당시의 사회조사연구에서

6) 제주대학교만 하더라도 1982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학과의 증설과 교수의 대폭 충원 등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제주대학교, 1993).

7) 이는 민주주의와 사회조사의 상관성, 곧 사회조사의 정치학에 관련된 추론이다.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 정치체제 그리고 다원적 문화의 사회일수록 사회조사에 대한 허용도가 높고, 시민의 수용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조사에 대한 의도적 허위답변률도 낮아진다고 한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Denzin (1970), Babbie(1973), Riley(1974), Irvine, et al. (1990) 등을 참조할 것.

8) 〈표 2〉에서 사회조사연구의 발표는 110건이지만, 한 조사가 두개 이상의 연구주제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구주제의 총수는 〈표 3〉에서 보듯 342개로 나왔다. 즉 각 조사당 평균 3개 가량의 주제가 연구된 셈이다.

는 지역개발로 인한 문제의 발견과 그 완화와 해소보다는 여전히 개발지상주의적 논의가 중심에 서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로 오면서는 상황이 제법 달라진다. 우선 사회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연구주제가 인구와 지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의 2개 범주로 한정되고, 앞의 <표 2>에서 보았듯이 사회조사연구 성과의 발간도 1970년대의 10편에서 46편으로 4배 이상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세가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더 강화됐음은 <표 2>에서 확인된 바와 같다.

<표 3> 사회조사 연구주제의 시기별 분포

연구 주제 범주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합 계		
	N	%		N	%		N	%		N (Tj)	%	전체 순위
		N/Ti	N/Tj		N/Ti	N/Tj		N/Ti	N/Tj			
1	0	0.0	0.0	7	5.0	43.8	9	5.4	56.2	16	4.7	10
2	0	0.0	0.0	9	6.5	60.0	6	3.6	40.0	15	4.4	11
3	0	0.0	0.0	0	0.0	0.0	2	1.2	100.0	2	0.6	21
4	4	11.4	11.4	14	10.1	40.0	17	10.1	48.6	35	10.2	2
5	1	2.9	12.5	2	1.4	25.0	5	3.0	62.5	8	2.3	13
6	2	5.7	9.5	8	5.8	38.1	11	6.5	52.4	21	6.1	7
7	0	0.0	0.0	2	1.4	66.7	1	0.6	33.3	3	0.9	19
8	1	2.9	33.3	1	0.7	33.3	1	0.6	33.3	3	0.9	19
9	0	0.0	0.0	3	2.2	50.0	3	1.8	50.0	6	1.8	14
10	5	14.3	10.4	24	17.3	50.0	19	11.3	39.6	48	14.0	1
11	3	8.6	8.8	12	8.6	35.3	19	11.3	55.9	34	10.0	3
12	4	11.4	16.0	11	7.9	44.0	10	6.0	40.0	25	7.3	6
13	0	0.0	0.0	3	2.2	27.3	8	4.8	72.7	11	3.2	12
14	2	5.7	6.9	7	5.0	24.1	20	11.9	69.0	29	8.5	4
15	3	8.6	17.6	8	5.8	47.1	6	3.6	35.3	17	5.0	9
16	0	0.0	0.0	3	2.2	50.0	3	1.8	50.0	6	1.8	14
17	3	8.6	11.5	10	7.2	28.5	13	7.7	50.0	26	7.6	5
18	1	2.9	20.0	3	2.2	60.0	1	0.6	20.0	5	1.5	17
19	1	2.9	16.7	2	1.4	33.3	3	1.8	50.0	6	1.8	14
20	5	14.3	23.8	10	7.2	47.6	6	3.6	28.6	21	6.1	7
21	0	0.0	0.0	0	0.0	0.0	5	3.0	100.0	5	1.5	17
합계	35 (Ti)	100.0	-	139 (Ti)	100.0	-	168 (Ti)	100.0	-	342 (Ti)	100.0	-

주) 연구주제의 범주별 내용은 <표 1>를 참조할 것.

연구주제별로 이 1980년대의 사회조사 동향을 보면, 첫째로 1970년대의 연구 동향이 일정하게 계승되고 있다.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접근됐던 지역사회(24회, 17.3%), 사회집단과 사회범주(12회, 8.0%), 일상생활(10회, 7.2%), 문화·언어·민속(8회, 5.8%), 사회문화변동(10회, 7.2%), 산업·교통·기술(14회, 10.1%), 사회조직과 경영(11회, 7.9%) 등의 연구주제 범주가 이 시기에 와서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둘째로 1970년대와는 달리 정치와 행정(7회, 5.0%), 경제(9회, 6.5%) 등으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그리고 아직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법과 규범(3회, 2.2%), 행위와 행태(3회, 2.2%), 사회화와 교육(2회, 1.4%), 집합행동과 사회운동(3회, 2.2%) 등에 관한 사회조사연구도 선을 보여 나간다. 이 둘째의 연구 동향은 한마디로 연구주제의 범위가 사회의 여러 측면과 제도로 확산되는 경향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 이르러 개발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화·확대되어 나간 상황(이상철, 1995; 김석준, 1995; 조성운, 1992)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듯하다. 이 때쯤 그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학술과 실천 두 영역 모두에서 무척 두드러졌고 그런 배경이 지역 내 다양한 부문에 대한 사회조사의 필요성을 높였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는 위의 두 시기보다 짧은 7년의 기간만 검토되었다. 하지만 이 기간만 보더라도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틀어 발표된 56편의 연구성과에 거의 같은 수준인 54편의 사회조사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표 2〉참조). 사회조사연구가 괄목할만큼 왕성해졌고, 〈표 3〉은 그에 따라 조사의 영역도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이전의 연구 경향이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지역사회(19회, 11.3%), 사회집단과 사회범주(19회, 11.3%), 문화·언어·민속(11회, 6.5%), 사회문화변동(13회, 7.7%), 산업·교통·기술(17회, 10.1%), 사회조직과 경영(10회, 6.0%) 등의 연구주제 비중이 그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높다. 물론 일상생활(6회, 3.6%) 범주의 연구주제에 대한 접근처럼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축소되는 사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앞선 두 시기의 추세가 거의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기의 제주도의 변동과 쟁점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동향도 엿보인다. 그것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조사연구가 이 때에 처음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5회, 3.0%)는 점, 그리고 노동문제에 대한 조사연구(5회, 3.0%)도 확대된 점 등에서 일차적으로 감지된다. 이런 변화는 이 시기에 와서 제주도 개발의 효과에 대한 반성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암시해주거나, 이제는 개발로 인한 문제의 완화와 개발의 과실을 적절히 배분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쏟게 됐음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된다. 더불어 그 동안의 제주사회의 변동이

주민들에게 미친 의식적·행태적 측면에 대한 반성적 고찰도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식·태도·정체성(20회, 11.9%), 행위와 행태(8회, 4.8%) 등에 관한 조사연구가 잦아진 데서 확인된다.

요컨대, 1990년대의 특징은 첫째로 사회조사 연구주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연구성과가 폭넓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 사회조사연구 동향의 계승과 새로운 지역 쟁점에 대한 관심 표명이라는 것으로 압축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970년부터 1996년의 27년간 제주도에 대한 사회조사 연구의 주제들은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접근됐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표 3>에 정리한 순위 중 상위에 속하는 것들을 보면, 1위가 지역사회(48회, 14.0%), 2위는 산업·교통·기술(35회, 10.2%), 3위는 사회집단과 사회범주(34회, 10.0%)이다. 의식·태도·정체성 범주가 29회 8.5%로 4위, 사회문화변동이 26회 7.6%로 5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조직과 경영(25회, 7.3%)이 6위이며, 문화·언어·민속(21회, 6.1%)과 일상생활(21회, 6.1%)이 공동 7위로 뒤를 잇는다. 이에 의하면 그 동안 제주도에 대한 사회조사연구는 제주도의 독특함을 밝혀보려는 표본 사회론적 관심과 지역개발에 관한 토론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전자의 우세가 꾸준히 지속됐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조사연구의 기술적 측면과 기타 부문의 동향

제주사회의 여러 측면에 대해 사회조사연구가 확대되어 나가면서 공동연구를 통해 학문내 또는 학문간 다각적 접근을 시도한 사례도 증가된다. <표 4>에서 1970년대에는 단독 연구가 전체 10편의 연구 성과 중 8편으로 80.0%를 차지했는데 1980년대에는 69.6%, 1990년대는 51.9%로 그 비율이 꾸준히 축소된다. 그에 반비례하여 2명 이상의 공동연구의 사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동연구를 수행한 사례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한 연구대상에 대한 다각적이고 다차원적 접근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연관된 연구주제 범주의 확장을 가져오고 참여 연구자 간에 의사소통을 증대시켜 학술적 진전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긍정적 평가를 내려도 좋을 것이다. 이는 사실상 연구자의 다원화 전략(strategy of multiple triangulation)의 장점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⁹⁾

9) 다원화전략이란 실용적 측면에서 연구의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높이기 위해 선택되는 연구기법으로서 이론적 다원화, 자료의 다원화, 분석단위의 다원화, 연구자의 다원화, 방법의 다원화 등의 형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동·이은숙(1986), Denzin(1970) 등을 볼 것.

〈표 4〉 시기별 사회조사연구의 기술적 측면과 기타 부문의 동향

(단위: 편, %)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공동연구원 수	1명	8(80.0)	32(69.6)	28(51.9)
	2명	0(0.0)	5(10.9)	16(29.6)
	3명 이상	2(20.0)	9(19.5)	10(18.5)
조사방법	표본조사	4(40.0)	25(54.3)	36(66.7)
	사례연구	4(40.0)	20(43.5)	13(24.1)
	다원적 방법	2(20.0)	1(2.2)	5(9.2)
연구비지원여부	받음	5(50.0)	21(45.7)	22(40.7)
	받지 않음	5(50.0)	25(54.3)	32(59.3)
합 계		10(100.0)	46(100.0)	54(100.0)

공동연구원 수의 증가와 함께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다원화 전략이 도입되는 사례가 1990년대에 와서 적은 수이지만 증가하고 있다. 〈표 4〉에서 1970년대의 연구성과가 소수인 점을 감안해서 1980년대와 1990년대만을 비교할 때 조사방법을 다원화한 사례가 1편(2.2%)에서 5편(9.2%)으로 늘어나 그런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공동연구의 증가 추세에 비해 그 비중이 상당히 낮아 다원화 전략이 보다 충실해지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채택된 조사방법 중에는 사례연구보다 표본조사가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 1980년대에 표본조사는 54.3%(25편), 사례연구는 43.5%(20편) 이던 것이 1990년대에 와서 표본조사 66.7%(36편), 사례연구 24.1%(13편)로 변한다. 표본조사의 증가와 사례연구의 감소라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연구비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와 관련될 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표본조사는 사례연구에 비해 비용이 더 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4〉에서 연구비 지원은 근래로 올수록 양적으로는 증가한 것 같으나 비율면에서는 연구비를 지원 받지 않고 수행한 사회조사가 더 증가하고 있다. 연구비를 지원 받은 사회조사연구의 구성비는 1970년대 50.0%, 1980년대 45.7%, 1990년대 40.7%로 차츰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표본조사를 실시한 연구가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양적으로 많아지지만 그것이 연구비의 지원 동향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더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표본조사연구 중 전체의 42.5%만이 연구비 지원을 받았고, 사례연구는 그보다 다소 많은 46.7%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적어도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일회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그 자료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발표했을 개연성이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연구비 지원 여부를

밝히고 그 후의 연속된 작업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필자의 자료조사에서는 후자의 연구성과가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부호화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연구비의 지원이 조사방법보다는 지원기관이 의도하는 연구주제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됐을 개연성이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표 5>를 만들었다.

<표 5> 시기별·연구주제 범주별 연구비 지원 동향

연구 주제 범주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합 계			
	접근 횟수	연구비 지원		접근 횟수	연구비 지원		접근 횟수	연구비 지원		접근 횟수 (a)	연구비 지원		
		N	%		N	%		N	%		N(b)	%*	%**
1	0	-	-	7	7	10.9	9	4	5.9	16	11	7.3	68.7
2	0	-	-	9	3	4.7	6	3	4.4	15	6	4.0	40.0
3	0	-	-	0	-	-	2	2	2.9	2	2	1.3	100.0
4	4	0	0.0	14	5	7.8	17	6	8.8	35	11	7.3	31.4
5	1	0	0.0	2	1	1.6	5	0	0.0	8	1	0.7	12.5
6	2	2	10.5	8	4	6.3	11	4	5.9	21	10	6.6	47.6
7	0	-	-	2	1	1.6	1	1	1.5	3	2	1.3	66.7
8	1	1	5.3	1	1	1.6	1	0	0.0	3	2	1.3	66.7
9	0	-	-	3	2	3.1	3	2	2.9	6	4	2.6	66.7
10	5	5	26.3	24	13	20.3	19	11	16.1	48	29	19.2	60.4
11	3	1	5.3	12	5	7.8	19	3	4.4	34	9	6.0	26.5
12	4	0	0.0	11	4	6.3	10	3	4.4	25	7	4.6	28.0
13	0	-	-	3	2	3.1	8	0	0.0	11	2	1.3	18.2
14	2	1	5.3	7	4	6.3	20	8	11.8	29	13	8.6	44.8
15	3	3	15.8	8	5	7.8	6	5	7.4	17	13	8.6	76.5
16	0	-	-	3	1	1.6	3	2	2.9	6	3	2.0	50.0
17	3	1	5.3	10	3	4.7	13	9	13.2	26	13	8.6	50.0
18	1	0	0.0	3	0	0.0	1	0	0.0	5	0	0.0	0.0
19	1	1	5.3	2	0	0.0	3	1	1.5	6	2	1.3	33.3
20	5	4	21.1	10	3	4.7	6	3	4.4	21	10	6.6	47.6
21	0	-	-	0	-	-	5	1	1.5	5	1	0.7	20.0
합계	35	19	100.0	139	64	100.0	168	68	100.0	342	151(c)	100.0	-

주) 연구주제 범주별 내용은 <표 1>을 참조할 것. 합계의 구성비 중 %*는 b/c의 결과이고, %**는 b/a의 결과임. 연구비 지원 횟수는 발표논문 또는 단행본별로 산출하지 않고 연구 주제별로 산출했음. 발표논문 또는 단행본별 연구비 지원 횟수는 <표 4>의 해당 부분을 참조할 것.

〈표 5〉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진 연구주제 범주는 지역사회(29회 19.2%)이다. 다음이 의식·태도·정체성과 사회구조, 사회문화변동의 범주(각 13회, 8.6%)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를 정치·행정, 산업·교통·기술의 두 범주가 각각 11회, 7.3%로 이어가고 있다. 다시 그 뒤를 문화·언어·민속과 일상생활 범주가 각각 10회, 6.6%로 따른다. 이런 결과는 앞서 〈표 3〉을 분석하면서 보았던 연구주제별 사회조사 연구성과의 발표 동향과 유사하다. 순위가 다소 바뀌었을 뿐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범주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혹 이러한 것은 특정 연구주제 범주에 접근한 사회조사연구의 사례수가 연구비 지원 사례의 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게된 결과일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각 연구주제 범주별로 접근된 횟수와 그에 대한 연구비 지원의 횟수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표 5〉의 우측 마지막 열에 제시된 구성비 중 접근횟수가 10회 이상인 연구주제 범주들만을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비가 지원된 범주는 순서대로 사회구조(76.5%), 정치와 행정(68.7%), 사회문화변동(50.0%), 문화·언어·민속과 일상생활(각 47.6%), 의식·태도·정체성(44.8%) 등이다. 이 순위는 바로 위에 열거된 것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위에서의 순위만 보면 지역개발과 관련된 연구주제에도 연구비가 지원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적인 비율에 의하면 주로 제주사회의 독특함이나 특수성에 관한 사회조사연구나 그 변화상을 따지는 연구들에 지원된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연구비의 지원이 주로 지역연구의 표본사회로서 제주도라는 인식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이루어졌음을 뜻할 것이다.

IV. 요약과 결론

지금까지 1970년 이후 1996년까지 제주도를 대상으로 수행된 사회조사연구의 성과들을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이 글은 제주사회의 성격과 변동이 그러한 연구들과 어떤 방식으로 상관되어 있는지도 추적해보았다. 수집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예정했던 수준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 대략적 윤곽의 파악은 일정하게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그간의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제안을 덧붙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에 대한 사회조사연구는 근래에 오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다루는 연구주제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그러한 연구주제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조사가 일부 연구주제에 편중하여 수행된 경향이 뚜렷하여 제주사회의 변화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특히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노동 등의 몇몇 연구주제는 제주사회가 그 동안 경험한 지역개발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미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과 접근이 촉구된다.

둘째, 제주도를 표본사회 곧 지역연구의 적지로서 인식하고 접근을 시도한 사회조사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제주도의 특수성을 여러 면에서 밝히는 데 주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의 연구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와 제안을 하자면 한국사회의 보편성과 제주도의 특수성을 아우를 수 있는 조사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제주사회의 변동과정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인식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셋째, 시기적으로 뒤로 올수록 단일의 사회조사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의 수도 늘어나고 조사방법도 다원화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른바 다원화 전략의 장점을 살리는 것으로 매우 추천되는 연구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와 같은 시도는 더욱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어떤 대상에 대한 다학문간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은 학술적 전문화로 인한 절름발이의 이해나 설명을 극복하는 대안으로도 중요하다.

넷째,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고 수행된 사회조사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뒤집어 말하자면 사회조사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감소하는 경향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헌신적 노력으로 비용을 무릅쓰고 사회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조사에 드는 비용은 그리 적은 액수가 아니다. 사회조사를 통한 경험적 자료의 취득과 그로부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연구결과를 제대로 얻어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연구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연구비의 지원이 일부 연구주체에 편중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연구의 표본사회로서 제주도라는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동안 제주사회는 지역개발로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 외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됐다. 그런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사회조사연구의 성과가 아직은 크지 않은 편이지만,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들을 해소·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연구들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비의 지원이 가해져야 한다.

끝으로 이 글과 같이 한 지역에 대한 사회조사연구 성과만을 점검해보는 시도는 매우 드물다. 이 글이 자료수집에서부터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가 한 지역에 대한 경험적 자료의 집대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지역에 대한 경험적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데도 일조하며 결국에는 그 지역에 대한 학술적 이해를 총괄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요긴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그 출발점의 하나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계와 문제들은 차후의 보완을 기대해보기로 한다.

참고 문헌

강정식 · 좌혜경

1994. "탐라문헌 해제(1) : 구비문학 · 민속학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14 : 223-248.

권인혁

1996. "조선후기 제주도사 연구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3 : 19-32.

김경동

1980.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사회학계 동향의 수량적 고찰."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한국사회학연구』 4 : 1-48.

김경동 · 이은죽

1986. 『사회조사연구방법 : 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박영사.

김석준

1995. "제주지역의 특수성과 연구 동향 및 과제."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주최 지역연구 워크샵 발표요지(1995. 2. 17-18).
1995. "제주지역."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지방경영시대의 개막』 240-261.

김석준 · 이상철

1995. "제주지역 사회조사의 성과와 과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1995년도 학술발표회 『지방화와 지역사회연구방법론의 제문제』 발표요지(1995. 10. 6-7.).

김종업 외

1984.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3 : 1-110.

김종업 · 김동전 외

1991. "회고와 전망 : 제주도사 연구(1980년대)." 제주도사연구회, 『제주도사연구』 1 : 215-295.

신행철

1987. "제주사회연구의 전개와 과제." 『제주도연구』 4 : 47-63.

신행철 외

1985. "해방후 제주연구개관(Ⅲ) : 사회과학분야."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4 : 271-428.

양성종

1991. "일본에서의 제주도 연구 현황."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11 : 147-168.

이만갑

1972. "한국의 사회학." 동아문화연구소(편), 「한국학」 현암사.

이상철

1987(1995).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8(3) : 31-66.

1995.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의 태도변화."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12 : 71-114.

장주근

1984. "지역연구의 표본사회로서의 제주도." 「제주도연구」 1 : 7-18.

제주대학교

1993. 「제주대학교 40년사 : 1952-1992」, 제주대학교.

제주도

1993. 「제주도지」, 1, 2, 3권, 제주도.

조성운

1992. "제주의 관광개발과 주민의 각종 반대운동." 제주발전연구소, 「제주발전연구」 4 : 130-142.

한상복

1984. "제주도종합학술조사(1959) 개요." 「제주도연구」 1 : 293-322.

Babbie, E. R.

1973. *Survey Research Methods*, Belmont, CA : Wadsworth.

Denzin, N. K.

1970. *The Research Act in Sociology :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London : Butterworths.

Irvine, J. et al.

1990. *Demystifying Social Statistics*, London : Pluto (김정로·박태원 역, 「알기쉬운 사회통계학 강의 : 통계학의 비밀을 벗긴다」, 이성과 현실).

Riley, G. (ed.)

1974. *Values, Objectivity, and the Social Sciences*, Reading, CA : Addison-Wesley.

〈부록 : 분석대상문헌〉

강보식

1992. "관광상품 구매동기에 관한 실태분석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12 : 213-231.

강세현

- 1994a. "낙인과 친구관계 : 제주지역 비행 문화의 한 특성."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11 : 147-174.
- 1994b. "선택적 낙인과정과 비행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 "제주지역 청소년의 비행 및 낙인 문제와 복지적 대책."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11.

강영봉

1986. "제주도 방언의 식물이름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5.

강영순

1996. "기업문화 · 노사관계의 적합성과 조직유효성의 관계 : 제주지역 기업체를 중심으로."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16 : 211-235.

강윤희

1994. "제주사회에서의 두 방언 사용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11 : 83-146.

강창혁

1989. "양친의 자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9 : 15-50.

고남옥

1973. "제주지역의 특화 산업 실태 및 개발육성에 관한 조사 연구." 제주대 기업경영연구소, 『경영논집』 4.
1976. "제주지역 관광 산업 실태와 진흥방안." 제주대 관광개발연구소, 『논문집』 2.

고남옥 · 김태보

1986. "제주도 관광개발과 도민소득증대의 연계추진방안."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2.
1990.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개발전략 : 제주도 김녕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제주대 지역발전연구, 『지역발전연구』 2.

고재건 · 김형길

1995. "제주지역 호텔이용객의 지각된 서비스 질에 관한 연구."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11.

고창석 · 이청규 외

1989. "옛 제주관문인 화북포구 일대 학술조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8.

고창훈 · 이경원 · 김진호

1993. “한국의 정치체제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 제주도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연구』, 제5권 2호.

고충석 · 장성수 · 강지용

1988. “제주도민의 관광소득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민박업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새마을연구소연합회, 『새마을운동 학술논문집』 제13집 제2권.

김경호

1980. “관광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대, 『논문집』 (사회과학편), 제12집.

김경호 · 황용철

1994. “제주지역청소년소비자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제주대 관광산업연구소, 『산경논집』 8.

김두희 · 김영돈

1982. “해녀 입어 분규 조사연구 : 해녀 입어관행의 실태와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제주대, 『논문집』 (사회과학편), 제14집.

김범국

1970. “제주도내 제조업의 현황과 노동자 실태.” 제주대 기업경영연구소, 『경영논집』 1.

김범국 · 김형길

1993. “제주 관광토산품업의 육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9.

김석준

1986. “제주도 중산간 부락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 제주대, 『논문집』 (사회과학편), 제22집.
1987. “제주도 H리 주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 제주대 새마을연구소, 『새마을연구논문집』 4.
1988. “제주도 농촌주민의 계결사체 참여와 사회적 유대.” 『한국사회학』, 제22집 겨울호.
1991. “연평동의 사회구조.” 『연평마을』, 제주도 마을 민속지총서 1, 제주대 박물관.
1993. “제주도 농촌마을의 계결사체와 사회통합.”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9.

김석준 · 강세현

- 1996a. 「도박과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6b. “합법적 도박의 사회적 영향 : 제주지역 복권구입자를 대상으로.” 제주도연구회, 『제주도 연구』 13.

김영돈

1984. “제주도 연자매(물방에).”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1 : 323-364.
1973. 「정의고을」 민속자료보호구역 조사보고서 55호, 문화재관리국.

김영돈 · 김범국 · 서경림

1986. "해녀조사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5.

김진영

1989(1995). "제주지역 노동 시장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28집.

1995. "가정의례의식과 개선운동: 제주사회의 가정의례행위를 중심으로." 제주대 지역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11.

김창민

1993. "환금작물경제에 대한 일상적 형태의 농민 저항: 제주도의 낙동배기."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10: 67-97.

김태보

1979. "경제기반강화를 위한 지역사회개발의 방향: 북제주군 곶지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지역사회개발연구」 4.

1984.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지역사회의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남제주군 창천리의 새마을소득증대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제주대 새마을연구소, 「새마을연구논문집」 16.

1985. "기본수요접근에 의한 농촌소득증의 개발전략: 제주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4.

1990.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개발전략: 북제주군 김녕리를 중심으로." 제주대, 「지역발전연구」 2.

김태보 외

1991. "제주도 관광소득의 경제효과분석." 제주대, 「지역발전연구」 3.

김태보 · 허향진

1988. "제주지역 관광소득 잔류효과 제고방안: 제1차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및 관광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4.

김향원

1990.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향원 외

1987. "제주도 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제주대,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24집.

김향원 외

1996. "제주도민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동아시아연구소논총」 7.

김형길 · 김정희

1996. “제주 관광객의 만족·불만족에 관한 연구.” 제주대 관광산업연구소, 『산경논집』 10.

김혜숙

1985. “제주도의 일인가족 연구.” 제주대 『논문집』 (사회과학편), 제20집.

김혜연

1992.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12 : 233 - 248.

남석진

1986. “제주도 전통사회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 애월읍을 중심으로.”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9 : 163 - 243.

노창섭 · 강우철 · 김종서

1966. “제주도 개발 농촌 지역의 연구 : 신흥리 부락의 사회 경제 및 교육적 분석과 평가.” 이화 80주년 기념논문집.

박현숙

1992. “제주민속마을의 관광현상.”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9 : 129 - 180.

부만근 외

1986. “제주도 중산간 유희토지 개발·활용방안.” 제주대 지역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2.

서경림

1987. “어촌 공동체의 사회구조와 법규범과의 상호관계 : 제주도의 어촌을 중심으로.” 『현대법학의 제과제』, 동양산업사.

서경림 · 한삼인 · 고호성 · 고광민

1990. “제주도 마을의 공동체와 법규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10.

서현진 · 이상봉

1996. “제주지역 기업의 효율적 물류비 절감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관광산업연구소, 『산경논집』 10.

송병식

1996a. “직무만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제주지역 초·중등교원을 중심으로.” 한국상업교육학회, 『상교논총』 11.

1996b. “제주지역 택시운수업의 노사관계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노사관계연구』 7.

송병식 · 고석현

1994. “제주지역 관광호텔 종업원의 사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주대,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39집.

송병식 · 고성돈

1991. "제주지역 기업체의 노사협업체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제주대 지역발전연구소, 「지역발전연구」, 3.

송병식 · 조성근

1992. "제주지역 택시운수업의 노사관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 지역발전연구소, 「지역발전연구」, 4.

송병식 · 안정일

1994. "제주지역 초·중등학교 교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10.

신행철

1980. "한국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제주도의 행정단위 부락을 중심으로." 제주대, 「논문집」 (사회과학편), 제12집.
1982. "재일제주교포: 그 소수집단으로서의 성격과 계층 구조."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1: 123 - 155.
1983. "한국농촌지역사회의 특성과 그 권력구조 유형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제주도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 제주대, 「논문집」 (사회과학편), 제18집.
- 1987a. "한국농촌마을의 리더쉽 구조와 그 사회적 성취에 관한 연구: 제주도의 행정리 단위 마을의 리더쉽 구조와 동원." 「성곡논총」 18.
- 1987b. 「제주 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일지사.
1989. "제주도개발에 대한 주민의식구조." 한국개발연구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재검토」.
1994. "주민의식." 제주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1994. "제주마을의 공동생활권으로서의 성격과 그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4: 97 - 125.

신행철 · 고재건 · 장성수

1989. "제주도 시내·외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5.

신행철 · 오남삼 · 김승호

1986. "외화 수입증대를 위한 관광지 새마을 추진 방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국새마을연구소연합회, 「새마을운동 학술논문집」, 제11집 2권.

양시경

1989. "지역주민의 자주적 조직체에 의한 지역개발 방안 조사연구: 성산리, 서귀포 해녀·용담동 해녀를 중심으로." 제주대 지역발전연구소, 「지역발전연구」 1.

양영철

1991. "내생적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오남삼

1991. "관광지 주민의 관광 행태에 관한 연구: 서귀포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서울대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오동현

1972. "제주도내 주정공업의 실태 및 경영관리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제주대 기업경영연구소, 『경영논집』 2.

유영봉 · 현공남

1995. "제주감귤의 생산구조와 규모별 효율성 분석." 한국농업정책학회, 『농업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유팔무 외

1996.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비교연구: 춘천시, 청주시, 진주시, 제주시의 사례분석."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한국사회학평론』 3.

윤양수

1987. "제주도내 마을공동재산의 시·군에의 귀속과 그에 따른 주민권익문제" 제주대,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24집.

윤양수 외

1992. "제주도내 개발분쟁에 대한 환경법적 연구."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8.

문공부문화재관리국(편)

197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형설출판사.

이기욱

1984. "도시와 도시민: 마라도."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1.

1995. "제주도 농민경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이문웅

1991. "제주도 당제에 나타난 혈연성과 지연성." 최재석교수정년퇴임 기념논총간행위원회, 『한국의 사회와 역사』, 일지사.

이상철

1992. "제주시 운수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의식구조." 문학과지성사,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7, 『한국의 지역문제와 노동계급』.

이순형 외

1987. "마을단위 종합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전국새마을연구소연합회, 「새마을운동학술논문집」, 제12집 2권.

이창기

1991. "제주도의 제사분할." 최재석교수정년퇴임 기념논총간행위원회편, 「한국의 사회와 역사」, 일지사
1992. "제주도 제사분할의 사열연구." 영남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민속문화논문」 13.

장성수

1985.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연구: 관광불만요인을 중심으로." 제주대, 「이데올로기 연구논총」 3.
1995. "관광지주민의 지각하는 관광영향에 관한 연구: 남제주군 6개 마을주민의 지연성을 중심으로."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11.

장성수·고호성·고영철·고승익

1991. "제주도내 유동인구에 관한 조사연구."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7.

장성수·양영철

1989. "제주도 농촌 부락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5.

전경수·조경만

1984. "생활가스 이용에 관한 사례연구: 제주도 송당리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1: 255 - 291

전경수·한상복

1990. "지역개발의 통합모형과 주민참여: 제주도 1959 ~ 1989."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7.
1991. "제주도 촌락의 민속지적 약보." 최재석교수정년퇴임 기념논총간행위원회, 「한국의 사회와 역사」, 일지사.
1996. "제주도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13: 97 - 176.

정대연

1983. "준거집단과의 사회적 비교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17.
1984. "제주시의 생태학적 구조 분석."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3.

1993. “제주시의 계급구조.” 제주대,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37집.
1989. “도시 생태구조 이론들의 비판적 검증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학』, 제23집 여름호.
1996. “도시 생태구조의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30집 봄호.
- 정대연 외
1991. “제주근해 유인도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제주도, 『제주유인도학술조사』.
- 조문부 외
1978. 『제주도민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제주대 통일안보연구소.
- 조문부·부만근·신행철·양영철
1988. “지방자치의 효율화를 위한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4.
- 조문부·양영철·김성준
1990.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대,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30집.
- 조문부·고창훈·권영호·이경원
1995.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연구』, 제7권 제2호.
- 조진숙
1986. “제주도 성인여성의 의복구매 형태에 관한 실태조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5.
- 조혜정
1979. “Neither Dominance : A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 *Korea Journa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82. “제주도 해녀사회연구: 성별분업에 근거한 남녀 불평등에 관하여.”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7. “근대화에 따른 성역할 구조의 변화: 제주도 해녀 마을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여성개발원.
1988. “‘발전’과 ‘저발전’: 제주해녀사회의 성체제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 최영민
1995. “제주도 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이해 조정 방안.”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12: 179 - 207.

최재석

1979.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편

1989. 「제주도 지역경제의 연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고남옥·양영철)

한삼인

1993. “지역공동체의 법규범 : 중문 일부지역의 관습·법의식·자치규범을 중심으로.”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9.

한창영

1978. 「제주도 노인논고」, 한일문화사.

1990. 「제주도의 천수론」, 신아문화사.

허향진

1986a. “제주도 호텔업의 QWL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제주대 관광개발연구소, 「관광개발연구 논문집」 3.

1986b. “호텔업의 촉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 제주지역 관광호텔을 중심으로.”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5.

현용준

1970a.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 1.” 제주대, 「논문집」 제2집.

1970b.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 2.”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국문학보」 3.

1971. “Family and Religion in South Korea : Chiefly Based on Cheju Island.” *The Symposium on Family and Religion in East Asia Countries*. Vol. 3.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센터주최의 심포지엄.